

오토시(주문 전에 나오는 전채) ~식당이나 이자카야에서~ Otoshi ~At Japanese cafeterias & Japanese-style pubs~

일본의 이자카야에서는 오토시가 나오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테이블 차지와 같은 의미로 자리에 앉으면 작은 접시에 담긴 일품요리가 제공됩니다. 오토시는 일본의 문화이기도 하니, 이번 기회에 한 번 즐겨 보세요.

At an *izakaya* (Japanese-style pub), you may be served an *otoshi* dish without having ordered anything. An *otoshi* is essentially a table charge. It is a small dish you receive after being seated.

Otoshi is a unique aspect of Japanese culture, so please try to enjoy *otoshi* during your stay in Japan.

오토시는 테이블 차지와 비슷한 의미 / It is like a table charge

- 요리가 나오기 전까지의 사이에 술안주로 나오는 것이 오토시입니다.
While you are waiting for your meal, an *otoshi* may be served as a snack
- 오토시는 주문하지 않아도 나옵니다.
You do not order an *otoshi*. It is served automatically.
- 오토시는 유료로, 테이블 차지와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It is a paid service and serves as a sort of table charge



오토시는 일본의 오모테나시(대접)의 일종 / It is an aspect of Japanese "OMOTENASHI"

- 오토시는 일본의 오모테나시 문화의 일종입니다.
Serving *otoshi* is seen as an act of hospitality ("*omotenashi*")
- 원래는 주문한 요리가 나올 때까지 술과 함께 작은 접시에 담긴 전채를 서비스한 것이 시작이라고 합니다.
It is said that originally restaurant owners gave their customers small dishes to enjoy while drinking sake until the food was ready to be served
- 오토시는 에도 시대(17세기경)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It is believed that *otoshi* culture started in the Edo period (17th century)



알레르기 등이 있는 분은 점원에게 미리 말씀해 주세요.

If you have an allergy, don't hesitate to tell staff

- 만약 알레르기나 종교상의 이유로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는 분은 점원에게 미리 말씀해 주세요.
If you have an allergy or any dietary restrictions, please don't hesitate to let staff know.
- 다른 오토시가 준비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It might be possible for you to be served another *otoshi* dish



오토시는 계절의 일품을 즐길 수 있는 기회!

It is a precious chance to enjoy seasonal dishes!

- 오토시로 그 계절의 일품요리나 가게에서 추천하는 요리를 작은 접시에 담아 선보이기도 합니다.
Sometimes restaurant owners serve their recommended dishes or seasonal foods as *otoshi*
- 오토시는 이와 같은 추천 요리를 즐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So *otoshi* gives you a good chance to try some of the restaurant's best dishes
- 생각지도 않았던 마음에 드는 오토시를 발견했을 때는 점원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문의해 보세요.
If you find something that you like, feel free to ask the staff about it.

